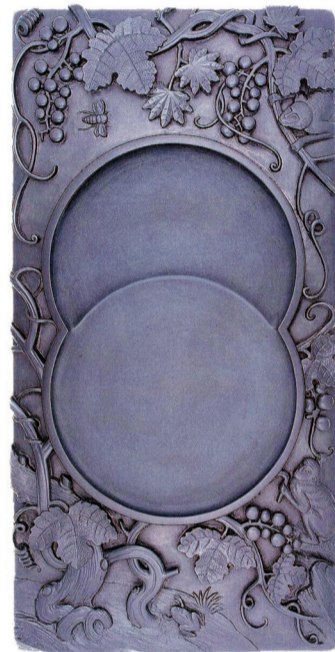


보령 '남포 벼루' 예향 광주에서 매력 발산

'보령 남포 명연특별전' 내달 4일까지 예술의거리 광주미술관
충남 무형문화재 제6호 김진한 선생 작품 등 30여점 한자리에



김진한 작 '천지역' (왼쪽), 노재경 작 '포도문일월역'.



예전 초등학교 미술시간에는 서예를 했었다. '가
뭇에 콩 나듯' 진행됐던 붓글씨 수업은 나름 재미가
있었다.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다보면 까맣게 변
하는 물빛이 신비로워 보였던 기억이 있다.

서예를 하시던 어른들은 먹을 중요하게 생각했
다. 그러나 먹을 발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벼루다.
선비에게 있어 벼루는 자존심의 상징이었다.

추사 김정희는 "먹을 거두는 데에만 능하고 먹을
발산시키는 데에 능하지 못한 것은 또 좋은 벼루가
아니다"며 "먼저 벼루를 얻은 다음에야 글씨를 쓸
수 있으니, 벼루가 아니면 먹을 둘 곳이 없기 때문
이다"고 말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벼루는 단순한 서예도구로만
치부되지 않고 예술적 도구 또는 기호적 도구로 수
용되고 있다. 서예도구를 제작하며 전통의 맥을 잇
고 있는 '장인'들도 벼루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접
근한다.

예향의 고장 광주에서 벼루를 모티브로 특별 전
시가 열리고 있어 '화제'다.

'제6회 보령남포 명연특별전'이 28일 개막해 오
는 12월 4일까지 예술의거리 광주미술관에서 펼쳐
지고 있는 것. 충남 무형문화재 제6호 서암(書岩)
김진한 선생을 비롯해 전승교육사, 이
수자, 전수생 작품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광주 특별전은 보령 남포벼루
대도시 순회전 6회 차로 마련됐으며,
모두 30여 점을 선보인다. 보유자인
김진한 선생 외에도 이영식 이수자,
노재경 전승교육사, 권태만 이수자,
조중현 전수자, 한영환 전수자, 한정
민 전수자, 한겨울 도예가가 작품을
출품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각양각색의 벼
루가 관람객들을 맞는다. 모양과 크기
도 제각각이지만 장식은 화려하면서
도 단아하다. 은은한 묵향과 기쁨이
배어나온다. 사각의 벼루만 있을 줄
알았는데 타원형에 직사각형에 형태
도 다양하다. 또한 문양도 풀잎과 나
뭇잎, 대나무 등 자연을 새긴 것부터



'보령 남포 명연특별전'이 오는 12월 4일까지 예술의거리 광주미술관에서 열린다. 남포벼루장 김진한(왼
쪽에서 5번째)을 비롯해 이수자, 전승교육사, 전수자 등이 포즈를 취했다.

학이나 용 등 상서로운 동물을 조각한 것에 이르기
까지 천차만별이다.

서예도구인 벼루는 충남 보령의 남포에서 나
는 남포석을 으뜸으로 친다. "운택함과 깔그러움이 서
로 겹쳐서 거품이 뜨고 먹이 빛나는 것을 취한다"는
추사 김정희의 평은 남포연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손환일(전 국립문화재연구소)은 '보령 남포 벼
루의 특징'이라는 글에서 "남포 연석의 광물학적 특
성을 분석하여 보면 좋은 벼루의 요점을 갖추고 있
음이 확인된다"며 "경도, 압축강도, 마모강도가 높
아야 먹물이 쉽게 마르지 않고, 공극률이 낮아야 흡
수율도 낮다"고 언급했다.

전시회에 참석한 벼루장 김진한 선생(84)에 따
르면 "남포 벼루는 먹을 갈아두면 20일 이상을 갈
만큼 쉽게 마르지 않는다"며 "원재료인 백운상석은
썩소리가 날만큼 맑고 청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벼루 표면은 은은한 색깔이 배어
나와 보는 이에게 정감을 선사한다"고 덧붙였다.

그에게선 평생 외길을 걸어온 장인에게서 느껴지
는 엄격함과 한편으로는 벼루의 덕성 같은 인자함
도 느껴졌다. 조부부터 3대째 가업을 이어 오는 그
는 남포 벼루의 대표적 장인으로 손꼽힌다.

60년 이상을 벼루 제작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온
그는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 "부친은
'벼루의 원재료가 되는 돌을 그쳐 돌아라 생각 말고
생명체라 생각하고 대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공방에서 벼루를 만들었지만 요즘은 시
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작하기가 어렵다. 10톤 이
상 나가는 돌을 운반하기도 힘들고, 좋은 공구를 사
용해야 원하는 모양의 벼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
다.

김진한 장인은 "어린 시절 벼루돌을 캐다가 아버
지에게 보여드리며 어떤 돌이 벼루돌로 가장 뛰어
난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안목을 길렀다"며 "전
통적인 조각에 장의적으로 개발한 조각솜씨를 덧붙
여 벼루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17세 입문해 49년째 벼루 제작을 하고 있는 노재
경 전승교육사(65)는 남포벼루에 대한 애정이 각
별하다. 그는 전시나 전승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남포벼루를 알릴 계획이다.

노 교육사는 "광주가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다. 일찍 와서 전시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특별전을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섬유·패션에 스민 현대미술

조선대 미대 박순천 개인전
12월 4일까지 손길갤러리

현대미술의 경계는 점차 확장되고 있다. 회화 외
에도 섬유, 패션에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 융합의 트렌드에 따라 경계를 넘어 새
로운 작품들이 이색적인 감성을 선사하고 있다.

조선대 미대 패션디자인전공 교수인 박순천 작
가 섬유와 패션을 모티브로 전시를 진행 중이다. 오
는 12월 4일까지 산수동 손길 갤러리에서 여는
'THE ULTIMATE IMAGES of UNIVERSE'
가 그것.

지금까지 박 작가는 디자인의 의미와 실천 방식
을 보여주는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작품에 내재하
는 색채미학과 조형미는 보는 이에게 신비로움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THE ULTIMATE IMAGES of UNIVERSE

'라는 시리즈 작품들은 예술의 융합적 특질을 보여
주는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패션적인 요소와 섬유
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결합돼 있을 뿐 아니라 서정
적인 미와 깊이를 아우른다.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가치의 결합이다. 박 작가가 상징하는 우주의 궁극
적 이미지는 섬유와 패션이 합하는 다양성만큼이
나 스펙트럼이 넓다.

신현주 평론가는 "작가 박순천 작업의 풍부성은
시간의 무한한 존재론적 단편이 만들어내는 서정적
메시지의 은유"라며 "시간의 연속성에 따라서 변화
하는 이미지들은 어둠의 먼 곳과 밝음의 비가시적
세계에서 도래한 형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한
다.

한편 박 작가는 서울, 밀라노, 달라스 등에서 20
회 개인전을 비롯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트스트프
초대전, 광주비엔날레국제미술상초대전 등에 참
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2월 적시는 클래식 낭만

카페뮤지엄 CM '화요 클래식'
3일 윤소희 첼로·김승일 피아노
17일 'Oh! Holy Night' 공연

카페뮤지엄 CM(이하 CM)이 올해의 마지막 달
'CM화요클래식' 라인업을 공개했다. 바흐와 율하
준 곡으로 채워지는 '한 해의 잔향'을 비롯해 슈베
르트, 모차르트 선율이 담긴 '사랑과 그리움이 흐르
는 Oh! Holy Night'이 그것.

먼저 12월 3일 오후 8시에 CM에서 열리는 '한
해의 잔향'은 바흐 '아리오소 칸타타 BWV 156'으
로 막을 올린다. 이어 김승일 '첼로와 피아노를 위
한 파르티타', 라흐마니노프 '첼로와 피아노를 위
한 소나타 G단조 Op.19'를 비롯해 율하준의 '마
중', '잔향'이 울려 퍼진다.

이날 공연에는 전남대 음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
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첼리스트 윤소희(사진)가 출연한다. 윤 씨

는 현재 광주교대, 국립순천대, 광주예고 등에 출강
중이다.

아울러 17일 같은 시간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흐
르는 'Oh! Holy Night' 공연이 펼쳐진다. 정애련
'진달래 꽃'과 민남일 '나의 나뭇잎', 슈베르트 '아
베 마리아', 모차르트 '할렐루야' 등이 레퍼토리에
있다.

호신대 교회음악학과 객원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김혜미의 목소리에 실린다. 김 씨는 이태리 밀라노
아카데미 등을 졸업했으며 오페라 '돈 카를로',
'라보엠' '마술피리' 등에서 주역을 맡아왔다.

두 공연 모두 피아노 연주는 호신대 음악학과 및
오스트리아 린츠 안톤부르크너 주립음대 전문연주
자과정을 졸업한 조혜원이 맡는다.

CM 사군 음악감독은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CM 화요 클래식'의 선율과 함께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레퍼토리를 구성했다"며 "한국
가곡은 물론 서양음악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심신을
차분하게 할 것이다"고 했다.

관람료 5000원. /최류빈 기자 rubi@



바르셀로나 국제작가영화제 대상 '미망' 상영 광주극장 내달 6일... 김태양 감독과의 대화도

"하나도 안 변했네/ 변할 게 뭐가 있나 그냥 시
간만 가는 거지."

지나간 인연과 일상의 의미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로드무비 한 편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지난
20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 김태양 영화 '미
망'이 바로 그것.

광주극장이 '미망' 광주극장 GV(관객과의 만
남) 행사를 오는 12월 6일 오후 7시 20분 극장
에서 연다. 영화 상영 후 김태양 감독, 이서영 프로
그램 코디네이터와 함께하는 씨네 토크 시간도
마련된다.

실 관람객으로부터 "기억과 공간의 여운을 담
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영화 '미망'은 바르셀로
나 국제작가영화제 대상, 우디네 극동영화제 퍼
스트 타임 디렉터상 등을 수상했다.

작품은 각기 다른 뜻을 담은 '미망'이라는 동
음이의어를 소재로 3개 이야기를 엮었다.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미망(迷妄)', 잊으려
해도 잊기 어려운 '미망(未忘)' 그리고 멀리 넓게
바라본다는 뜻의 '미망(彌望)'을 모티브 삼았다.
과거 연인이었던 남자를 우연히 만났다가 헤어
지고, 이들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기는 등 다양한
에피소드는 기대를 더한다.

한편 작품은 뉴욕 MOMI 퍼스트 룩 페스티벌,
런던한국영화제 시네마 나무 부문, 파리 한국영



화제 랜드스케이프 부문 및 프랑크푸르트 한국영
화제 등에 공식 초청·상영된 바 있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버스에서 잘못 내리
면서 인연이 시작되는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서
로 다른 길을 걷는 두 번째 이야기, 장례식장에서
재회하는 마지막 서사까지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
한 영화"라며 "각각의 에피소드는 개별적이지만
연결되면서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라는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고 했다.

관람료 성인 1만원, 청소년 9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문화소외계층 찾아간 '예술 보따리' 성료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재
단)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찾아가는 예술 배
달, 문화보따리' 사업이 지난 26일 성료했다. 문
화소외계층 및 어르신들의 가정, 거점 기관 등을
방문해 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

재단은 지난 8개월간 '거점형', '가정 방문형',
'시설 방문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역민을
만났다. 동구 관내에 위치한 23개 시설 및 가정
을 총 23회 방문, 공연자를 포함해 총 511명이 참
여했다.

26일 광주 빛고을복지관에서 빛고를 장기자
재

요양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마지막 공연
은 아따마를 통기타 팀의 '썰레꽃', '울릉도 트위
스트' 및 아코디언 합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사인무용단의 '진뚝배기', '노들강변',
'풍악을 울려라' 등 무용 레퍼토리를 볼 수 있었
다. 현미문화예술단은 트로트 곡 '애간장, 운명
같은 여인'과 '청풍명월'로 관객들을 만났다.

문창현 재단 대표이사는 "제가 독거 어르신 등
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펼치는 이번 프로그램
이 문화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
로 기대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문화 보따리',
'점심 콘서트'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많은 아
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고 했
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